



Date : 28/06/2006

한국의 어린이 도서관봉사와 '가족독서'

송영숙
(Young Sook Song)

서울독서교육연구회 회장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 | |
|--|---|
| Meeting: | 81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with Reading |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 No |
|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72ND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20-24 August 2006, Seoul, Korea http://www.ifla.org/IV/ifla72/index.htm | |

초록:

독서분과와 함께 어린이 청소년분과에서 결정한 기본주제인 '가족독서'에 초점을 맞춘 발표문이다.

우선, 한국의 어린이 도서관봉사에 대한 간략한 역사, 어린이 도서관 운동,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 개관을 살펴보았다.

또한, 가족독서를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의 캠페인과, 이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했다.

특별히, 독서캠프와 가족이야기잔치 한마당이 가족독서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수한 사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의 어린이 도서관봉사와 ‘가족독서’

1. 어린이 도서관봉사의 간략사

공공도서관 어린이봉사의 현황

1970년대만 하여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도서관봉사는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보잘 것이 없었다. 공공도서관에 어린이열람실은 있어도 학생들의 공부방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979년 5월에 ‘서울시립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봉사의 한 줄기 빛이었다. 이 도서관은 21세기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 유일한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6년 5월 현재에는, 많은 관련시민단체와 매스컴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끌어내어 어린이도서관이 도약하는 시기에 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도서관을 말하고, 어린이 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영향으로 어린이전용도서관이 이곳 저곳에 설립되는 추세이다.

한국도서관연감(한국도서관협회, 2005)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어린이 열람봉사를 보고한 도서관의 수와 어린이전용도서관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 | 계 | 시/도 | 교육청 | 사립 | 어린이실(전용도서관) |
|----|-----|-----|-----|----|-------------|
| 서울 | 44 | 16 | 22 | 6 | 30 (2) |
| 부산 | 24 | 10 | 12 | 2 | 23 |
| 대구 | 13 | 0 | 12 | 1 | 9 (1) |
| 인천 | 11 | 3 | 8 | 0 | 10 |
| 광주 | 12 | 7 | 5 | 0 | 12 |
| 대전 | 15 | 13 | 2 | 0 | 12 |
| 울산 | 5 | 1 | 4 | 0 | 5 (1) |
| 경기 | 70 | 59 | 8 | 3 | 62 (2) |
| 강원 | 39 | 17 | 22 | 0 | 33 |
| 충북 | 25 | 10 | 15 | 0 | 20 (1) |
| 충남 | 38 | 19 | 19 | 0 | 26 |
| 전북 | 36 | 18 | 17 | 1 | 23 |
| 전남 | 44 | 25 | 19 | 0 | 32 (1) |
| 경북 | 51 | 23 | 28 | 0 | 43 |
| 경남 | 42 | 18 | 24 | 0 | 33 |
| 제주 | 18 | 11 | 6 | 1 | 16 |
| 계 | 487 | 250 | 223 | 14 | 389(8) |

* 2004년 말의 통계이므로 현재의 숫자와 상이할 수 있음

* 최근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 6관(9관 중 3관은 이미 포함)추가

1) 인표 어린이도서관

설립자는 에스콰이어 문화재단의 이인표 회장, 문화적·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게 독서하며 생각하는 문화공간을 마련해 어린이의 꿈을 키워주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 5월, 상계동에 제 1호 인표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한 이후 전국에 14곳, 중국 6곳, 카자흐스탄, 알마티, 러시아, 사할린 등 해외에 8곳 총 22곳에 동일 모델의 분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립 공공도서관의 시작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인표 어린이도서관이 사회복지관 내에 설립되어 있어서 도서관으로서 독립된 제 역할을 잘 할 수 없고, 전문사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 어린이도서관운동

작은 어린이도서관, 가정도서관(informal, private)이 주부들에 의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1990년대 중반에 어린이전문서점이 붐을 이루면서 어린이들의 독서활동을 돕다가 작은 어린이도서관 또는 가정도서관 등으로 그 역할이 전환되어 발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고들은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어린이들의 방과후 공부를 도와주거나 독서지도를 하는 곳이었다. 그런 중에도 뜻을 가진 작은 도서관들이 모여 1998년에 작은 어린이도서관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2005년 3월 <사단법인 어린이와 도서관>을 설립시킨다. <어린이와 도서관>은 책을 읽는 일은 어린이들의 삶을 가꾸는 일이며,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문화를 일구는 문화사랑방이라는 생각으로, 동네에서 지역에서 어린이의 독서와 문화활동을 해온 작은 도서관들을 돕고자 결성되었다. 그 외에도 이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많은 작은 어린이도서관이나 가정도서관이 있다. 어린이도서관 길잡이-어린이도서관 설립에서 운영까지(어린이도서관연구소, 2004)에 의하면 2001년 기준으로 2,277관의 문고가 운영되고 있다.

4)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한 민간 텔레비전 방송의 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온 나라 사람들이 모아 준

귀중한 시민성금,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간영역이 기부한 각종의 자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낸 분담금으로 기적의 도서관이란 이름의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었다. 2003년 순천 기적의 도서관을 시작으로 제천, 진해, 제주, 서귀포, 울산, 청주, 금산, 부평에 2006년 4월 현재, 9관의 기적의 도서관이 만들어졌다. 기적의 도서관은 민과 관이 함께 세우고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민관협력모델의 도서관이다. 모든 어린이는 바르게 밝게 자유롭게 자랄 권리를 가지며,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일은 어른 사회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탐험과 매혹의 경험을 통해 상상력이 넘치는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돕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설계되었고, 유아(baby, toddler)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창조적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모델을 제시하고 구현하는 것이 기적의 도서관의 취지이고 정신이다.

3) 한국도서관협회의 어린이 청소년 봉사위원회 발족

2003년 7월, IFLA의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ection의 상임위원 위촉과 함께 한국도서관협회의 어린이 청소년 봉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어린이·청소년 봉사위원회의 목표는 우선 좋은 독서습관의 풍토조성과 좋은 책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도서관 사서,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독서지도를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어린이·청소년 봉사의 정착과 어린이사서의 역할이 뿌리내리도록 하며, 그 개념이 정립되도록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4년과 2005년에 사서를 위한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열어 좋은 호응을 얻었다. 2004년에는 30명이 워크숍에 참가하여 13명이 수료하였고, 2005년에는 30명이 참가하여 27명이 수료하였다. 그리고 많은 회원이 모이지는 않지만 매월 1회씩 모임을 가지고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6) 어린이·청소년 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도서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착에 주력하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도서관을 찾도록 하며, 어른이 되어서도 도서관고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① 독서교실; 1971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하고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독서교실은 겨울,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봉사 프로그램이다. 이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생각되며, 아직도 절대적인 도서관의 수가 부족하여 도서관혜택을 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다. 독서교실에서는 도서관투어, 도서관 이용교육, 독서교육 등 종합적인 도서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가장 도서관적이면서 어린이들에게 맞는, 그리고 독서의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도서관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였다. 특별히 Booktalk, Storytelling hour, 어린이 자료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즐거운 활동 등을 독서교실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켰다.

<예>

| 시간 | 7일(월) | 8일(화) | 9일(수) | 10일(목) | 11일(금) | |
|-----------------|---------------------------|------------------------|--|---------------------|---|--|
| 09:00 -09:50 | 등록 및 입교식 | 출석 체크 및 독서기록 | 출석 체크 및 독서기록 | 출석 체크 및 독서기록 | 출석 체크 및 독서기록 | |
| 10:00 -10:50 | 마인드 맵 으로 자기소개 하기 | 특강: 독서자료의 종류와 특성 | 신문활용 으로 이야기 꾸미기 (준비물: 사진이 많이 들어있는 신문지) | 원고지작성 및 독후감상문 | 동화역할극 (준비물: 도화지, 그림도구, 가위, 테이프.) | |
| 11:00 -11:50 | | | | | | |
| 12:00 -12:50 | 점 심 | | | | | |
| 13:00 -13:50 | 독서기록 하는 법 및 | 올바른 독서법 | 독후감상화 그리기 | 독후감상문 쓰기 | 독서카드 정리/평가 (소감문) | |
| 14:00 -14:50 | Booktalk (책소개) | 자유독서 | 자유독서 | (준비물: 원고지) | 수료식 | |
| 15:00 -15:50 | 도서관 이용법 | 자유독서 | 자유독서 | 영화감상 | | |

② 일일 독서교실: 일일 독서교실은 도서관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공공도서관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으로부터 도서관에 오는 단체방문객을 위해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투어, 이야기시간, 책소개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견학단체의 수준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맞이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독서는 즐겁고 흥미로운 활동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

③ 재미술술 이야기시간; 듣기훈련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문자를 배우기 이전의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교육의 방법으로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어 보인다. 확실히 스토리텔링은 어린이 봉사 프로그램으로 가장 전통적이고도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서울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차츰 이 전통적인 어린이 프로그램인 이야기시간이 정착되어 가는 중이다.

사서를 위한 이야기강좌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교육이 이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도서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를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④ 독서회;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는 다양한 그룹의 독서회가 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어린이 독서회, 청소년 독서회, 주부독서회 등이 그것이다. 어린이 독서회나 청소년을 위한 독서회는 사서나 자원봉사자가 모임을 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독서회는 사서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한다.

2. 가족독서를 위한 캠페인

1) 한 도시 한 책 읽기;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2003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도서관협회가 추진한 사업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독서운동을 한국사회에 접목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는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독서운동이다. 2003년 말, 서산을 시작으로 순천, 2004년 초에는 부산, 원주로 이 사업이 퍼져나갔다.

선정된 도서는 주로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어린이 책이 선정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토론모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시민들은 오랫동안 어린이 책을 읽지 못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 책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을 상기할 수 있었다는 것과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화의 기회는 가족간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애,

선생님과 관계를 부드럽게 했다. 특히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공공도서관이 주도적인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선정되었던 책은 도서관의 대출빈도나 판매에서 상당한 수치를 나타냈고, 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졌다.

이 캠페인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한 마을 한 책 읽기로 확산되고 있다.

2) 책 읽는 서울; 2004년에 시작한 ‘책으로 하나되는 서울시민’ ‘책으로 하나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책이 문화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기초예술은 책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9월 독서의 달에 다양한 행사로 ‘책 읽는 서울’의 시작에 불을 지폈다. 서울시내의 31개 공공도서관이 ‘2004 책 읽는 서울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으며, 각 도서관은 자체의 도서관주간 행사와 함께 전체를 아우르는 세미나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3) 가족독서 캠페인(책 읽는 가족 선정): 가족독서운동은 한국도서관협회가 2002년 9월, 독서의 달을 계기로 시작한 캠페인으로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독서운동이다. 가정에서 먼저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국민 독서진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을 잘 활용하는 독서가족을 선정,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도서관을 잘 이용하여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되면 한국도서관협회장과 해당 공공도서관 관장명의로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4)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전문교육: 이 사업은 2004년, 서울시의 여성발전기금을 받아 서울독서교육연구회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에 세 번째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1) 목적

① 서울거주의 50세 이상의 (예비)할머니들에게 도서관이나 유치원 학교,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이야기꾼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② 할머니(오래됨)와 손자(새로움)가 옛날 이야기나 그림책, 동화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발한다. 함께 하는 기회는 서로 다른 세대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할머니들은 일하는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게 한다.

③ 손자를 비롯한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은 이를 통해 자신도 즐거울 뿐 아니라, 아름답고 환영 받는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한 사회활동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2) 진행방법

① 다양한 이야기의 방법을 훈련한다; 이야기 들려주기, 그림책 읽어주기, 동요 및 전래동요 부르기 등.

② 아동작가와의 만남과 강의를 듣는다.

③ 도서관의 이야기시간과 독서캠프에 참가하여 아이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3) 결과

①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들이 배출되었다. 이것은 많은 도서관들이 어린이봉사 프로그램, 특별히 이야기시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자/자원봉사자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참가자들은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얻고, 또다시 노년의 설계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③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56개 단체 중에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전문교육이 2004년에 최우수상을 받았고, 2005년, 2006년에도 지속적인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3. 가족독서 프로그램을 위한 사례

1996년 2월, 서울독서교육연구회는 비영리시민단체로서 발족되었다. 어린이들에게 좋은 독서환경을 만들어 주는 독서운동 및 도서관운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주고, 즐거운 책세상을 열어가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 열심히 어린이 책을 연구하여, 어린이와 책과 자연을 이어주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고리 운동을 한다.

독서교육의 기본은 아이들이 책을 즐길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좋은 독서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있다. 이러한 독서체험의 방법은 언어체험과 자연체험인데, 언어체험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는 것이다. 자연체험을 위해서 독서캠프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도서선정 및 평가, 도서관프로그램 개발, 독서 및 도서관운동 등, 책과 자연, 어린이를 연결해주는 다양한 활동들이 family reading과 연계되어 있다.

1) 독서캠프에서 우리는 자연과 책을 만난다

서울독서교육연구회는 매년 독서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독서캠프는 우리에게 책과 자연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들이 성공적으로 자연과 책을 만날 수 있도록 독서캠프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확실한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캠프장소를 찾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쉽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리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뚜렷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어울리는 캠프장소를 찾는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것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 주제에 맞는 도서를 선정한다.

둘째, 캠프를 지나치게 대형화하지 말고 참가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 캠프의 진행에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고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즐기면서 독서체험을 하도록 유도한다. 참가대상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생부터 중학생, 부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어른들의 참가로 안전사고의 확률이 거의 없으며, 어린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같이 참가한 엄마들도 캠프의 한 가족으로 즐기게 된다.

셋째, 독서캠프를 통해 사람과 자연과 책이 만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짠다. 캠프장소의 특성, 그 지역의 역사와 유적지 등을 조사하고 책을 선정하여 미리 읽고 자연과 더불어 그것이 체험되도록 ‘책이야기(책소개)’ ‘독서토론’ ‘이야기시간’ ‘유적지 견학’ 등의 활동을 한다.

어린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나 관심이 없이 어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모든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어린이 독서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그 속에서 옳고 바르게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데 자연을 체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자연체험의 방법으로 독서캠프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서울독서교육연구회가 1997년부터 해마다 진행했던 독서캠프의 예이다. 기본적으로는 1박2일의 일정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개학이 일주일 정도 남아있어 방학생황을 마무리하기 좋을 때를 택한다. 이러한 캠프의 진행은 물론 가족여행을 계획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독서캠프를 계획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책과 어린이, 그리고 자연을 이어주는 활동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i) 4~5권의 관련된 도서를 선정하여 캠프 이전에 미리 읽도록 한다. ii) 자기 전에 반드시 이야기시간을 가진다. iii) 오전

중에는 읽어 온 책에 대한 독서 활동과 즐거운 독후활동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① 대가족체험 독서캠프(1997년 8월, 원주 치악산)

참가인원이 30-40명 정도의 조출한 캠프일 때 어울린다. 친구이거나 서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자기들의 자녀를 친구로 만들어 주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을 때, 이런 형태의 독서캠프를 계획한다면 효과가 좋을 듯하다.

<진행>

-할머니 아빠들까지 참가하여 대가족을 만든다.

-참여한 부모들의 나이나 기타의 여건을 고려하여 큰 아빠 큰엄마, 작은 아빠 작은엄마, 고모, 이모 등으로 가족을 구성한다. 그리고 참가한 어린이들은 서로 별명을 지어주어 한 가족의 형제자매가 되게 하고, 가족나무도 만들어 가족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물론 별명을 지을 때는 친구들의 특징이나 성격을 파악하는 시간을 주어 아이들 스스로 별명을 지어 선물하도록 한다.

-아빠들의 어렸을 적 이야기, 할머니들이 가르쳐 주신 들꽃 들꽃에 대한 이야기, 캠프파이어, 물놀이는 물론 들꽃 들꽃들을 채집하여 식물도감도 찾아보며 자연체험을 즐기도록 한다.

② 감골 영동 맛보기 독서캠프(1998년 8월, 영동 유스호스텔)

특정한 어떤 지역에 대한 특색이나 문화 등을 알고 싶다면 그곳에 관련된 책을 미리 읽어보기도 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 교류를 통하여 함께 협력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진행>

-독서캠프를 진행할 때에 지방 어린이와 도시 어린이가 서로 친해지고 모두 섞여서 조를 짜면 조별활동이 두드러질 수 있다.

-감골 영동의 특색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영동은 감나무 가로수를 보면서 감골 입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웃하고 있는 옥천에 있는 국악당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음악과 악기를 경험할 수도 있다.

③ 개화기의 역사 엿보기 독서캠프(1999년 8월, 덕포진 교육박물관)

김포의 덕포진에 있는 교육박물관은 예전의 학교교육을 체험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덕포진은 서양문물을 배척하던 흔적을 잘 보여주는 유적지이다. 교육박물관의 바로 옆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 김포시에 신고만 하면 캠핑하기에도 좋다.

<진행>

-엄마 아빠들이 공부했던 교실을 그대로 재현한 옛날 교실에서 부모들의 학교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교육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옛 조상들의 슬기도 볼 수 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당시 서양문물을 배척하던 흔적이며, 임금님을 모시고 강화로 피신하다가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한 손돌과 그의 무덤 등 개화기의 역사를 엿보는 좋은 기회를 만든다.

④ 책과 함께 자연 속으로!(2000년 8월, 영월 책박물관)

영월에서 좀 떨어진 곳, 깊숙이 들어앉은 아름다운 마을의 책박물관, 책박물관으로 참하게 변신한 폐교된 분교가 신작로에서 하늘 나라를 향해 올라가듯 계단을 한참 오르면, 운동장을 앞자락에 멍석 깔아놓은 듯 내려다보고 있다. 자연과 책과 사람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곳, 이곳에서는 환경문제도 생각해 보고(동강이 아닌 서강이 가까이에 있음) 영월의 장릉(단종의 능)과 단종의 유배지인 청량포도 둘러 볼 수 있다.

<진행>

-책박물관의 관람, 아름다운 산골 마을의 정취 느끼기, 어스름 저녁나절 서강의 냇가에서 자연 즐기기 등, 자연을 그대로 숨쉴 수 있는 곳이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별이 쏟아지는 밤에 하는 이야기시간, 어둠이 깔린 자연 속에서 신비한 이야기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다.

-캠프파이어를 즐기며 감자 옥수수를 구워 먹는 재미가 강원도를 느끼게 한다.

⑤ 오감놀이 독서체험(2001년 8월, 충주 토끼산그림터/봉황 자연휴양림)

충주의 토끼산그림터는 그림책작가 정승각의 작업실이다. 작은 시골교회였던 건물을 그림작업실로 개조했다. 작업실 뒤에 있는 작은 동산이 토끼산이어서 정승각 선생님의 작업실이 토끼산그림터가 되었다. “ 오감놀이를 그림 그리기”를 하고 봉황자연휴양림의 통나무집에서 숙박을 했다.

<진행>

-모듬별 카레라이스 만들기 경연대회로 저녁을 준비했다. 누구네 카레라이스가 제일 맛이 좋을까? 남남, 우리 카레라이스가 최고! 모두 적극적으로 카레라이스 만들기에 참여했다.

-이야기시간과 캠프파이어, 모듬별 장기자랑이 한밤의 숲 속을 시끌벅적하게 했다.

-가까이의 권태응 생가 및 시비를 답사하고 권태응의 시, “ 감자꽃” 을 노래하고, 토끼산그림터에서 만든 작품으로 모듬별 퍼포먼스를 하다.

⑥ 신나는 우리 음악, 풍물놀이체험(2002년 8월, 문경 고사리수련관)

문경의 고사리 수련관은 이화여대에서 운영하는 연수시설이다. 시설이나 식사, 안전 등, 여러 면에서 훌륭하다. 우리의 풍물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좋은 시설의 강당에서 풍물패를 초대하여 간단한 공연도 보고, 다 함께 어우러져 뱃노래, 민요 등을 배웠다. 가까운 곳에 역사 드라마 ‘ 태조왕건’ 의 촬영 세트장이 있어 견학하는 기회도 가졌다.

<진행>

-점심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먹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태조왕건 세트장을 견학했다. 갑옷을 입은 장수들과 사진도 찍고 그 당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풍물놀이 공연과 체험은 우리를 모두 하나가 되게 했고, 들떠있던 우리는 굿나잇 이야기시간으로 취침준비를 하게 했다.

-풍물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여 모듬별로 연습, 풍물경연대회를 하였다.

⑦ 숲소리를 들어 보아요!(2003년 8월, 강릉 무쇠골 자연학교)

대관령을 넘어 강릉 시내로 들어가기 전 무쇠골로 들어서면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바위계곡을 앞으로 한 우리 연구회 회원의 별장이 있다. ‘ 무쇠골 자연학교’ 로 명명하고 캠프장소로 택하였다. 숲의 바람소리, 새소리, 계곡의 물 흐르는 소리, “ 숲소리를 들어 보아요!” 를 주제로 삼았다.

<진행>

-강릉의 경포대로 가서 오죽헌과 참소리 박물관을 먼저 관람하였다.

-모듬별 돼지고기 바비큐 대회로 저녁을 준비하고, 이야기시간에는 숲이나 나무에 관한 주제를 가진 이야기와 전래동요를 불렀다.

-강릉은 초당두부가 유명하기 때문에 아침식사로 는 순두부 영양식으로 두부의

고장임을 다시 확인했다.

-달구지 타고 동네 한 바퀴, 산골마을을 돌아보았다.

⑧ 들꽃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와 옛날이야기(2004년 8월, 삼척 들꽃학교)

삼척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폐교를 이용한 들꽃학교가 있다. 산자락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콩밭과 옥수수 밭이 펼쳐진 들꽃학교 운동장에는 들꽃과 들꽃이 앞을 다투어 피고 있다.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교육으로 할머니 이야기꾼이 배출되어, 할머니들이 독서캠프에 함께 했다.

<진행>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큰 동굴인 환선굴을 견학했다. 들꽃학교의 가까운 곳에 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옛날놀이 대회(자치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등)를 하였다.

-들꽃학교 근처의 자연을 돌아보고, 들꽃, 들꽃, 풀벌레 등을 관찰하였다.

⑨ 우리 문화를 찾아서(2005년 8월, 전주 한옥마을)

우리의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우리의 옛 문화를 체험하였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듯 한국의 전통음식, 조선시대의 건물, 이씨 조선의 왕족 등을 만났다. 마당놀이인 줄넘기, 대청마루에서 벌어진 윷놀이, 전통가옥의 옛날가구가 놓여진 방에서 잠을 자는 일로 우리의 옛 문화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었다.

<진행>

-견학한 역사를 주제로 마인드 맵을 해 보기도 하고 미니 북 만들기 활동도 하였다.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시간,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다도수업, 한지공예 과반을 만들었다.

-평양냉면, 개성탕반과 함께 조선 3대 음식으로 알려진 전주비빔밥을 먹었다. 커다란 나무그릇에 색색 가지 나물들과 고기, 계란 지단 등을 넣어 만들어진 80인분의 전주 비빔밥을 여럿이 함께 비벼보는 재미있는 체험을 했고, 색깔도 맛도 환상적이어서 가히 세계적인 음식이라고 생각된다.

2) 가족이야기잔치 한마당은 가족독서의 진수

서울독서교육연구회에는 책고리 이야기회라는 이야기꾼들의 모임이 있다. 책고리 이야기회가 진행하는 ‘가족이야기잔치 한마당’은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여 이야기의 즐거움과 도서관을 체험하게 하는 가족독서의 좋은 사례이다. 주로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또는 도서관이나 책에 관련된 축제의 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의 시설이나 환경, 또는 기관이나 단체, 장소에 따라 관중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융통성 있게 이야기잔치 한마당을 진행시킬 수 있다. 2003년 가을, 독서의 달 10월부터 시작된 가족이야기잔치 한마당은 올해로 4년째가 되었고, 올 가을에도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려고 한다.

① 프로그램 진행은 대략 1시간30분이 소요되며, 다음과 같다.

- * 재미술술 이야기시간(30분): 옛날이야기와 노래
- * 슬라이드 그림책(10~15분)
- * 휴식 및 스트레칭(5~10분)
- * 이야기 마당극(20~25분)
- * 뒤편이(5~10분)

-재미술술 이야기시간의 즐거움을 알리는 재미있는 노래나 전래동요로 시작되어, 옛날이야기를 세 편 정도 들려준다.

-그림책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읽어준다.

-간단한 게임, 또는 스트레칭으로 몸을 움직여 준다.

-그림책 등의 어린이 책을 마당극으로 바꾸어 공연한다.

-뒤편이 시간에는 마당극에 나오는 노래나 춤에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흥이 있고 신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한다.

② 이야기잔치 한마당이 진행되었던 장소

* 2003 가을별밤 이야기잔치 한마당: “ 아씨방 일곱동무” (막대인형극 공연)

송파도서관(2003년 10월2일)

고덕평생학습관(2003년 10월31일)

* 2004 가족이야기잔치 한마당: “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누군지” (이야기 마당극 공연)

강남도서관(2004년 10월28일)

송파도서관(2004년 10월29일) 동작)
한국수양부모협회(2004년 12월28일)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 기념 책축제-남이섬(2005년 4월30일)

* 2005 가족이야기잔치 한마당: “ 팔죽할멈과 호랑이” (이야기 마당극 공연)
동작도서관(2005년 9월)
강서도서관(2005년 10월13일)
송파도서관(2005년 10월27일)
마포평생학습관(2005년 11월3일)
더불어 복지재단(2006년 2월28일)
대구 효목도서관(2006년 2월28일)
정독도서관(2006년 4월15일)
영종도 초등학교(2006년 6월17일 예정)

4.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다

- 우리 사서들은 도서관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책과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어렸을 때부터 좋은 독서습관을 만들어 주려면, 가족독서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도서관들이 해야 할 일이다.
- 가족독서를 증진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은 가장 가치있는 도서관 사업이다.
- 가족독서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현대사회 속에서 가족을 하나로 묶는 역할도 할 것이다.

IFLA 서울대회의 “ 도서관: 지식과 정보사회의 역동적 엔진” 이란 주제는 가족독서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가족독서로 완성될 것이다.